

KIA, KT에 연패 8경기 차... 멀어지는 4위



‘호랑이 구단’의 4위 도전에 먹구름이 끼었다. KIA 타이거즈가 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14차전에서 2-6패를 기록했다.

전날 토마스 파노니의 7이닝 무실점의 호투에도 1-5 역전패를 당했던 5위 KIA는 4위 KT에 연패를 기록, 8경기 차까지 벌어졌다.

상대 선발 좌완 벤자민이 헤드샷으로 3회 조기 강판됐지만 KT 마운드 공략에 실패했다.

이날 시즌 3승을 노렸던 임기영은 5.2이닝 6실점(4자책점)을 기록, 시즌 11패째를 기록했다.

3일 1-5, 4일 2-6 연속 패배 벤자민 헤드샷 조기 강판에도 마운드 공략 실패로 ‘무릎’

1회초 아쉬운 수비로 KIA가 선취점을 내줬다. 선두타자 조용호가 2루 내야 안타로 출루했다. 2루수 김선빈의 송구 실책까지 겹치면서 무사 2루. 김민혁의 희생번트에 이어 황재균의 유격수 땅볼 때 조용호가 홈에 들어왔다.

1회말 KIA가 바로 균형은 맞췄다. 2사에서 나성범이 벤자민의 초구 122km 커브를 우중간 담장 밖으로 날리면서 승부를 1-1 원점으로

돌렸다.

3회 KIA가 초반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이우성이 선두타자로 나와 우전 안타로 출루한 뒤 2사에서 이창진의 중전안타로 2사 1-2루, 나성범의 타석 때 벤자민의 직구가 머리 방향으로 향했다.

헬멧 보호대 부분에 맞으면서 다행히 나성범은 그대로 경기를 이어나갔지만 벤자민은 헤드샷으로 퇴장했다. 시즌 10번째 헤드샷 퇴장.

갑작스러운 투수 교체에 이뤘지만 KIA는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사이드암 이재호로 투수가 교체됐지만 소크라테스가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득점 없이 3회가 끝났다.

김선빈, 황대인, 박동원이 나선 4회말에도 이재호에게 삼자범퇴를 기록했다.

그리고 5회초 임기영이 흔들렸다.

1사에서 임기영이 심우준에게 중전안타를 맞았다. 이어 조용호의 타구가 우익수 방향으로 향했고, 이우성을 넘어 1타점 2루타가 됐다.

임기영이 김민혁을 포수 플라이아웃으로 잡으면서 투아웃은 만들었지만 황재균에게 투런포를 맞으면서 1-4가 됐다.

KIA가 5회 1사에서 몸에 맞는 볼을 시작으로 다시 공격에 나섰다.

1사에서 임석진이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한 뒤 박찬호의 2루 땅볼로 2루까지 향했다. 이어 이창진의 우전안타가 나오면서 KIA가 1점을 추격했지만 이

게 이날 마지막 득점이었다.

임기영은 6회에도 실점하면서 이닝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첫 타자 강백호에게 2루타를 맞고 1사에서 배정대에게 우전 안타를 내주면서 1-5. 이어 신본기의 중견수 플라이 때 공을 잡은 소크라테스의 악송구가 나왔고, 2사 2루에서 심우준의 좌전안타가 나오면서 임기영이 6실점을 하고 등판을 끝냈다.

두 번째 투수 김유신이 조용호를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임기영의 성적은 5.2이닝 11피안타(1피홈런) 1탈삼진 6실점(4자책점)이 됐다. 그리고 경기 가 그대로 2-6패로 마무리되면서 임기영의 올 시즌 성적은 2승 11패가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민재(나폴리)가 4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스타디오 올림피코에서 열린 2022-2023 세리에A 5라운드 라치오와 원정경기에서 전반 38분 1-1 동점을 만드는 헤딩 골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골 넣는 수비수’ 김민재 2호골 ... 나폴리 선두 도약

토틀넘 손흥민 또 무득점 오프사이드 판정에 골대 불운

손흥민(30·토틀넘)이 불운에 시달리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개막 후 6경기째 침묵했다.

손흥민은 3일 영국 런던의 토틀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kick오프한 2022-2023시즌 EPL 6라운드 풀럼과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후반 39분 이반 페리시치와 교체될 때까지 뛰었다.

하지만 그는 오프사이드 판정과 골대 불운에 가로막혀 이날도 첫 골을 신고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전반 10분 왼쪽 측면에서 오른발로 잡아 찬 슈팅이 골대 안으로 향하면서 골 맛을 볼 뻔했지만, 헤딩을 시도하려 한 케인이 오프사이드에 걸려 득점이 무산됐다.

이어 전반 33분에는 또 한 번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케인의 패스를 가슴으로 받은 손흥민이 문전으로 달려들며 찬 왼발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와 웃지 못했다.

손흥민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파들은 공격포인트를 떠나며 활약했다.

김민재(26)는 4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스타디오 올림피코에서 열린 2022-2023 세리에A 5라운드 라치오와 원정경기에서 선발 출전, 전

반 38분 1-1 동점을 만드는 헤딩 골을 터뜨렸다. 올림피아코스는 김민재의 동점골과 후반 16분 흐비차 크바라헬리아의 역전골을 앞세워 2-1로 이겼다.

김민재는 전반 38분 피오르트 지엘린스키가 올려준 코너킥을 타점 높은 헤딩으로 마무리해 골망을 흔들었다.

스페인 프로축구 마요르카에서 뛰는 이강인(21)은 시즌 2번째 도움으로 맹활약을 이어갔으나 팀은 무승부에 그쳤다.

마요르카는 3일 스페인 마요르카의 비시트마요르카 에스타디오에서 열린 2022-2023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4라운드 지로나와 홈 경기

에서 1-1로 비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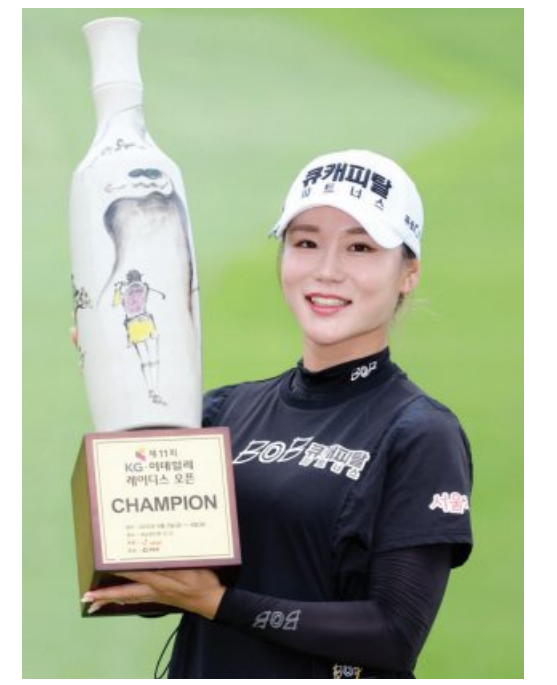
시즌 개막 후 4경기 연속 선발로 출전한 이강인은 경기 끝날 때까지 중립무진 그라운드를 누볐고, 후반 42분 코너킥으로 안토니오 라이오의 선제골을 도왔다.

정우영은 3일(한국시간)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2022-2023시즌 분데스리가 5라운드 레버쿠젠과 원정경기에서 교체선수 명단에 포함됐다. 전반 9분 만에 투입된 뒤 1-1로 맞선 후반 6분 미하엘 그레고리치의 역전 골을 도왔다.

정우영은 경기 끝날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비며 올 시즌 가장 긴 81분을 소화했다.

정우영이 후반 상대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공을 가로챈 뒤 골 지역 오른쪽으로 몰고 가 골문 쪽으로 찰러주자 그레고리치가 쇄도하며 왼발로 차 넣어 전세를 뒤집었다.

/연합뉴스



4일 KG-이데일리레이디스 오픈에서 우승한 황정미가 트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정미 첫 우승

KLPGA, 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황정미(23)가 연장전 끝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황정미는 4일 경기도 용인시 처남포인트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총상금 7억원) 최종일 연장전에서 김수지(26)를 제치고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최종일 3타를 줄인 황정미와 4언더파 68타를 친 김수지는 최종 합계 14언더파 202타로 3라운드를 마쳐 연장전을 벌였다.

황정미는 18번 홀(파5)에서 치른 연장전에서 6m 버디를 잡아내 파에 그친 김수지를 따돌렸다.

2020년 KLPGA투어에 데뷔한 황정미는 신인 시즌은 상급랭킹 43위에 그쳤고, 작년에는 시드를 잃어 시드전을 다시 치러 복귀하는 등 지난 2년 동안 성적은 신동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과 호반 서울신론 위민스 클래식 등 두 차례 준우승을 차지해 달린 모습을 보인 끝에 생애 첫 우승까지 차지했다.

이번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은 황정미가 KLPGA투어에서 65번째 출전한 대회였다.

우승 상금 1억2600만 원을 받은 황정미는 상급랭킹 11위(3억8496만원)로 뛰어올랐다.

/연합뉴스

광주FC 이견희 ‘극장골’ ... 김포FC에 짜릿한 역전승

K리그2 홈경기 2-1 승리 2위에 승점 13점 앞서 1위 독주

1위 독주에도 늘 ‘아쉽다’며 달리는 말에 체찍을 가하던 광주FC 이정호 감독이 “오늘만큼은 만족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웃었다.

이정호 감독을 웃게 한 경기, 광주가 이견희의 ‘극장골’로 김포FC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극을 연출하면서 우승에 한 발 더 다가갔다.

광주는 지난 3일 열린 김포와의 K리그2 37라운드 홈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뒀다.

0-1로 뒤진 후반 45분 아론의 헤더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뒤 경기 종료 직전 나온 이견희의 헤더로 영화 같은 승리를 완성했다. 광주는 이날 승리로

21승 9무 4패(승점 72)를 기록, 두 경기를 덜 치른 FC 안양(승점 59)에 13점 앞선 1위 독주를 이어갔다.

막판 두 골을 넣으며 승부를 뒤집은 자체도 극적이지만 ‘행운의 여신’이 김포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았던 경기였기 때문에 선수단과 팬들의 감동은 컸다.

이날 광주는 두 차례 골대 불운에 울었다.

전반 15분 정호연의 슈팅이 골대 맞고 나왔고, 후반 43분에도 상대 골키퍼 이상욱의 선방 속 골대 맞은 공이 문전에 있던 이견희를 피해 방향을 틀면서 광주가 땅을 쳤다.

광주는 아론의 동점골이 나오기 전까지 14개의 슈팅을 날리면서 8개의 유효슈팅도 만들었지만 유독 경기가 풀리지 않았다. 전반 23분 기록

된 김포 손석용의 선제골이 결승골이 되는 것 같았지만 광주는 ‘5분의 기적’으로 승부를 뒤집었다.

이정호 감독은 “안일하게 실점하고 끌려가는 면이 있었는데 전반 끝나고 충분히 역전할 수 있으니 우선 한 골부터 따라가자고 했다. 연습했던 대로 후반에 극단적으로 공격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선수들이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다”며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역전하기 위해서 있는 힘 없는 힘 쥐어짜서 열심히 해준 것 같아서 오늘만큼은 만족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것 같아서 우리 선수들이 대견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 골이 기억 속에 가장 많이 남을 것 같다”며 결승골 순간을 이야기한 이정호 감독은 이 승리가

우승에 중요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감독은 “결과가 무승부로 끝났어도 큰 타격을 입었을 것 같다. 위기라고 생각했다. 부천전(1-2패)때 길을 가다가 넘어진 것처럼 다시 흔들릴 것 같고 당황했는데 선수들이 그렇게 흔들릴까 봐 버린 것 같다. 다음 경기 준비하고 우승으로 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모처럼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은 이정호 감독은 결승골 주인공 이견희에게 선물도 할 생각이다.

그는 “하승운, 이견희하고 둘 중 누가 먼저 5골을 넣느냐를 놓고 내기를 했다. 명품 신발을 갖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기본 갈아서는 (돈이) 아깝지 않을 것 같다.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대견하다”고 웃었다.

축구 인생 최고의 순간을 보낸 이견희는 “힘든 경기였는데 찬스가 오면서 팬분들에게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드리게 됐다”며 “(박)한빈이 형이 드리블하면서 크로스가 날아오는데 공이 앞에 수비수 때문에 가려졌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골 순간을 이야기했다.

이견희는 시즌 초반 3골을 넣으면서 광주의 1위 질주에 시동을 건 선수다. 하지만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뒤 34라운드 서울이랜드전을 통해서 4호 포를 가동했다. 그리고 극적인 5호골로 부산전 1-0 신승, 김포전 1-2패로 위기를 맞은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는 “부상 복귀 후에도 경기를 못 나갔다. 팀이 잘하고 있었고 스스로 못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힘들기도 했다. 코칭스태프가 몸을 끌어올릴 수 있게끔 도와줘서 큰 힘이 됐다”며 “(선물로) 최대한 비싼 것을 이야기할 생각이다(웃음). 감독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고, 동기부여도 된다”고 말했다.

또 “스스로 축구가 느는 것을 느낀다.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것보다 그게 제일 마음에 든다. 공격수니까 포인트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